

Yeosu Web Contents

2024년 05월 07일 13시 50분



목차

목차	2
보도자료 - 건설	3
여수시, 웅천 공사현장 흠막이 붕괴사고 '원인 발표'...재발방지 총력	3

보도자료

해명자료

여수시, 웅천 공사현장 흠막이 붕괴사고 ‘원인 발표’…재발방지 총력

2023.01.31 조회수 524 담당부서 허가과 담당자 정은주 연락처 061-659-4101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11월에 여수시 웅천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흠막이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과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붕괴사고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여수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3개월 여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해안을 매립해 조성된 부지는 바닷물의 영향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발생하는 지형적 특성으로 지하터파기를 진행하면서 차수(물이 새거나 흘러드는 것을 막음)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나 이에 대한 시공과 관리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설계에는 수로호안 쪽 흠막이 벽체를 차수성이 있는 SHEET PILE로 계획했으나 흠막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등 민원 발생으로 차수성이 떨어지는 C.I.P(Cast In Place Pile) 벽체로 변경하면서 보조차수공법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부분적으로 불완전 차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토사유실로 이완영역 발생과 토압 증가로 C.I.P벽체가 붕괴됐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매립지의 특수성을 감안해 흠막이 설계 시 철저한 분석과 흠막이 벽체 시공과 계측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함에도 이에 대한 품질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 터파기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과 굴착과 STRUT(흠막이 수평 버팀대) 시공 지연이 확인되는 등 시공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밝혀졌다.

여수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사, 감리사 및 공사관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흠막이 붕괴 원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먼저 흠막이 공사에 대한 설계를 보완해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또한 임시 복구 구간의 차수그라우팅, 배수계획 수립, 터파기 공사 시 주 1회 이상 외부전문가 현장 점검 등 지하 터파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후 공사 재개를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매립부지 흠막이 공사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공사 안전점검에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1 여수시, 웅천 공사현장 휴막이 붕괴사고 '원인 발표'...재발방지 총력.jpg (465 hit/
604.6 KB) ↓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여수시, 청년 취업자 116명 주거비 지원...전남도...

다음글

여수시, '교통문화수준' 전국 2위...40위→2위로 ...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Yeosu Web Contents

